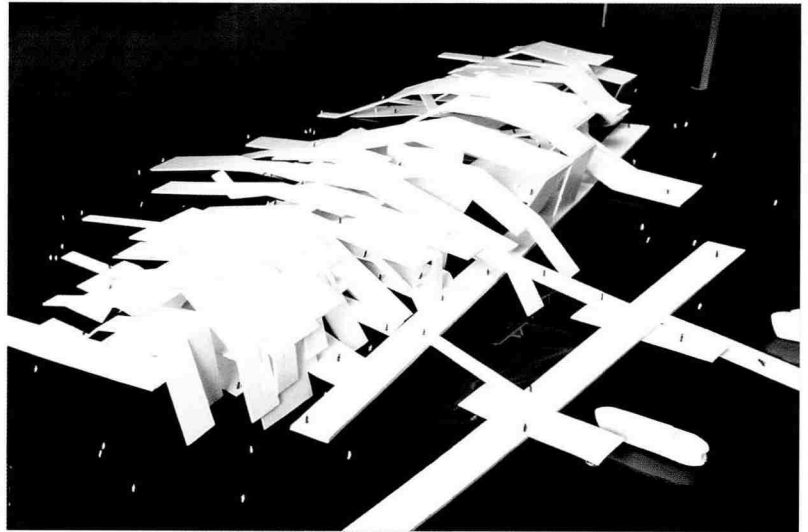


Yong-san Park, Han River and Skin - 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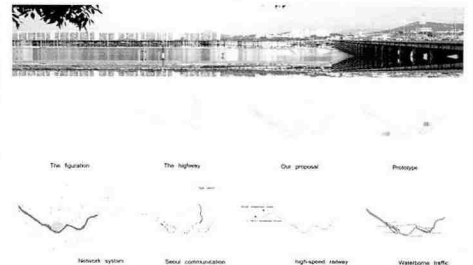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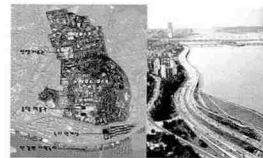
조성태, 이재윤, 오보경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기존의 건축공간은 전례의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규정하여 발생하는 이벤트와 행위를 규정하기에는 불가능해졌다. 대부분의 공간에 대한 관계는 행동과 공간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의존적이지도 않은 다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인간의 행위와 건축 프로그램의 개념은 서로간의 규칙을 드러나게 혹은 은연중에 침범하고 있다. 그러한 불확정적 행위에 대한 수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즉 단순히 형태의 유희로서만의 건축의 변형이 아닌 건축의 본질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적 관점에서 풀고자 한다.

Prologue ..

서울의 황폐 모습은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공간 속에서 부유하던 행위의 행위가 사라졌다. 일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인해 기존의 공간,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있다. 서울 도시부의 행위를 통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과 함께 이전까지 인간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진 행위를 통해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행위의 새로운 접근, 도시부의 행위와 건축사 행위의 새로운 행위를 통해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Yong-san Park, Han River and Skin-scape

Design Process

Program Diagram

Layers

Structure Skin

Step Scale

Order Scale

Plant Scale

Roof Scale

Phase 1 Programming

Phase 1 Trans-programming

Phase 1 Cross-programming

Plan scale 1 : 1600

Section scale 1 : 500